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위싱턴 성광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여러분 가정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파라과이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연일 40도를 오르 내리는 마지막 불볕 더위를 뽐어내고 있습니다.

1)'아메리칸 미션 스쿨' 새학기 시작

아메리칸 미션 스쿨 초등학교는 지난 2월 3일 금요일 다시 새학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처럼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기쁨과 보람과 행복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수업전에 30~40분씩 아이들이 소리높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소리와 악을 쓸정도로 힘있게 외치는 성귀 암송 소리를 듣노라면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 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대기업 간부 심지어 변호사까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졸업식때 6학년 어린이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다른 학교 중학교에 보내기 싫으니 야간 반이라도 열어 달라고 하소연 하듯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몸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고도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가하면 학교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도 같은 '사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3~4개의 가게를 가지고있는 학부모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척 소개로 자기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제대로 잘 가리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조금은 교만한투로 말하면서 자기 자녀를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금년 2월, 3명의 다른 이웃 학부모들에게 우리 학교를 소개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년전 부터는 입소문을 통하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주위에 수많은 커다란 학교들을 마다하고 운동장도 없고 얼핏보면 학교 같지도 않은 작은 저희 학교에 오늘도 기쁨으로 등교하는 아이를 볼때마다 커다란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요 후원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중으로 3층 건물이 지어지면 내년부터는 중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 학교 건축 상황

작년에 오른쪽 눈 망막 수술로 인하여 한국에서 수술후 몇 개월 회복 기간을 보내고 10월에 선교지로 돌아온후에도 1개월 정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안정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 3층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여러명의 건축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믿음만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견적을 부탁했는데 연말이라 바쁘고 게다가 1월 한달 휴가를 갔다오고 다른 곳에 건축 일들로 인하여 지난주에야 견적서를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검토한후 결정이 되면 3월안으로 3층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면서 또한 문교부에 '중고등 학교 허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3)목회자 부부세미나 사역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현지인 목회자 부부 2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년 전 1차 세미나를 가진뒤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학교 건축을 하느라 어려웠고 작년에는 눈 수술을 하느라 할수 없었습니다. 아직 건축이 진행중에 있지만 '목회자 재교육 세미나'

사역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생각이들어 금년부터 매월 1회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집회에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셨고 3월 18일(토) 다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일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본질',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살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먼저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 그분만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과, 교회에서 뿐만이 아닌 삶속에서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관계에 이르는 삶을 살수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카 미션 스쿨'초등학교 예배 시간



제2차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마치고

<기도제목>

- 1.'아메리칸 미션 스쿨'초등학교 2017년 입학생과 교사들이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안에서 자라가도록
- 2.'아메리칸 미션 스쿨' 중고등 학교 3층 건축과 '중고등 학교 허가'를 위하여
- 3.현지인 '목회자 부부 3차 세미나'(3월 18)와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 할수 있도록.
- 4.'쁘리멜 아몰 교회'를 비롯한 지교회 성도 그리고 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 5.'인텐시브 영어 수업' 교사와 어린이를 위하여
- 6.단기 선교사의 헌신을 위하여.(영어, 미술, 컴퓨터 부분및 헌신하기 원하는자 누구든지)
- 7.김정훈 남영자 선교사가 주님을 갈망함이 더 깊어지도록

2017년 3월 남미 파라과이에서
김정훈 남영자 선교사 드림